'36세 이닝이터' 멈춤 없는 전진…한걸음, 한걸음이 도전의 연속

양현종, 1천694일만에 완투승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9회 8피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두고 포수 한준수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토종 에이스 양현종이 1천694일 만에 완투승을 거뒀다.

양현종은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서 팀의 9-1 대승을 이끌었다.

시즌 1호 완투승의 주인공이 된 양현종은 9회까지 8피안타 1볼넷 6삼진 1실점의 완벽투로 시즌 3승째(1패)를 수확했다. 양현종이 완투승을 거둔 건 2019년 9월11일 롯데 자이언츠전(9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이후 1천694일만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이닝 부문 1위, 평균자책점과 피안타율 부문 4위 등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송진우(210승 153패)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통산 170승 고지를 밟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07년 KBO리그에 데뷔한 '토종 에이스' 양현종은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반이지만, 다양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9년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은 그의 전매특허이자, KBO리그 최초다.

양현종은 2014년 171⅓이닝을 시작으로 매 시즌 170이닝 이상을 던졌다. 2016시즌엔 200⅓이닝을 책임지며 개인 한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다. 2020시즌에도 172⅓이닝을 던진 양현종은 2021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며 잠시 기록 행진을 쉬어갔다.

1년 만에 KBO리그에 복귀한 2022년에는 175⅓이닝을 소화했고, 지난해에도 171이닝을 던지며 기록을 이어갔다.

올해도 7경기 등판해 44⅔이닝을 소화하며,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양현종의 대기록 행진은 또 있다.

양현종은 현재까지 통산 탈삼진 1980개로 이 부문 역대 2위에 랭크돼 있다.

KBO리그 역사상 1천800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송진우(2천48개·전 빙그레)와 양현종 단 두 명뿐이다.

1위 송진우와는 단 68개 차이다.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33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양현종이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전무후무한 통산 탈삼진 대기록을 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역대 통산 이닝 부문 2위 기록도 곧 갈아치울 채비다.

양현종은 현재까지 총 2천377이닝을 던지며 KBO 역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산 이닝 부문 1위는 송진우(전 빙그레)의 3천33.0 이닝이고, 2위는 정민철(전 빙그레)의 2천394.2이닝이다. 정민철의 기록과는 겨우 17이닝 차이다. 6이닝 피칭 기준으로 앞으로 3경기를 더 등판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록이다. /주홍철 기자

통산 탈삼진 1천980개, 69개 더하면 1위 송진우 넘어서
'2천377이닝' 소화…올 시즌 통산 이닝 2위 등극 '초읽기'

광주시청 육상팀이 주축이 돼 36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육상 400m 릴레이 국가대표팀이 바하마 나소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김태효·고승환·이재성

400m 릴레이 올림픽 티켓 도전

4-5일 세계계주선수권 출전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33)과 김태효(31), 고승환(26), 이재성(22)이 주축을 이룬 한국 남자 육상 400m 릴레이 국가대표팀이 36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김국영과 김태효, 고승환, 이재성은 이시몬(23·안양시청)과 팀을 이뤄 오는 4-5일(현지 시간) 바하마 나소 바하마 국립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세계릴레이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은 당초 남자 400m 릴레이에 6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준혁(23·국군체육부대)이 부상으로 낙마해 5명이 파견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예선 4개 조 1·2위 또는 패자부활전 3개 조 1·2위에 들면 파리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다. 남자 400m 릴레이에는 32개 국이 출전해 예선과 패자부활전, 결선을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한다.

예선과 패자부활전 조 1·2위를 차지한 14개 국가 외에도 2개 국가에 티켓이 더 주어지는데 18개 국가 중 기록이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2개 국가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한국은 가장 좋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청 육상팀 맏형인 김국영은 올림픽 진출을 향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현재 바하마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 김국영은 "올림픽에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후배들과 후회 없이 도전해 보겠다. 아직 자력으로 올림픽에 나선 경험이 없는 만큼 처음으로 출전권을 따내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바하마에 오기 전까지 진천선수촌에서 호흡을 맞추는데 주력했다. 개인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바통 터치에 실수가 없다면 충분히 한국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깨야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38초74 이내에 결승선을 통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광주시청 선수들이 한국 육상 남자 계주를 책임지고 있는데 좋은 성적으로 올림픽 출전권과 한국신기록 경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른 나라 선수들의 개인기록이 9초대라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기적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연패 끊었다"…"이제부터는 연승이다"

광주FC, 제주 원정 엄지성 선제골·이희균 쐐기골 3대1

오는 6일 대전하나시티즌과 홈 맞대결 '연승' 시동

광주FC 이희균이 지난 1일 열린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선 후반 24분 쐐기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6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광주는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4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올 시즌 3승 6패(승점 9)를 기록하며 대구(승점 8)를 제치고 최하위를 벗어났다.

광주는 경기 초반 제주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6연패와 3연패로 승리가 절실했던 두 팀의 대결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펼쳐졌다.

치열한 중원 싸움이 되던 전반 37분 제주 여흥규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키퍼 김경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전반 40분에는 임창우가 감아 찬 공이 광주 골문 오른쪽 구석을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갔다.

전반 추가시간 3분, 기다리던 광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정호연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길게 투입한 공을 엄지성이 잡아 쇄도했으나 페널티박스 안에서 제주 윙백 김태환에 의해 넘어졌다. 주심의 패널티킥이 선언됐고, 엄지성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했다.

광주는 후반 이희균과 김진호가 교체 투입됐다.

광주에게 행운도 따랐다.

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찬 공이 바람을 타고 절묘하게 휘어 제주 수비수가 머리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싱승세를 틴 광주가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후반 23분 엄지성의 슈팅을 김동준 골키퍼가 가슴으로 막아냈지만 이 직후 공격 전개에서 가브리엘의 땅볼 크로스를 이희균이 잘라 넣으며 3대0 리드를 잡았다.

후반 26분 추격 골을 내준 광주는 제주의 공세에 잇단 실점 위기를 맞았다. 후반 41분 제주 서진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왔고, 후반 45분, 조나탄의 강력한 헤더 슛은 김경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제주의 막판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낸 광주는 마침내 6연패를 끊는 귀한 승리를 수확했다.

제주를 상대로 연패를 벗어난 광주는 오는 6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대한체육회, 어린이날에 진천선수촌·태릉빙상장 개방

대한체육회가 5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개방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진천 선수촌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이우석, 스포츠클라이밍 대표 서채현의 사인회와 국가대표 훈련시설 탐방, 마술 공연,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태릉 선수촌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제스케이트장을 열어 어린이들에게 동계 종목을 체험할 기회를 준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해 스케이트화를 공짜로 빌릴 수 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갑과 안전모는 개인이 지참하거나 현장에서 구입 또는 대여하면 된다.

문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043-531-0034)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02-970-0501)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목포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어르신생활체조 체력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수업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목포 등 도내 11개 시·군 22개소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4천여만원 확보

'2024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에 목포·순천 등 도내 11개 시·군 22개소가 선정됐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연속성 있는 교실사업으로 체력 측정, 스트레칭 및 요가, 참가 연령대별 선호종목을 선정해 프로그램 및 용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개 시·군의 12개소를 운영했던 전남은 올해는 전년 대비 10개를 추가 확보해 11개 시·군 22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체육회는 개소별 180만원, 총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각 시·군에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민 체육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